

1993년도 原典醫史學
會
《內經》강독 정리.-2.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白上龍

教材-新編黃帝內經綱目

講讀者：洪元植(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主任教授)

<정리방법>

- * 문단의 번호는 綱目的 편제를 그대로 引用하였음.
- * 한 討論者가 여러번에 걸쳐 發言하였다 할지라도 주제가 같고 발언내용이 脈을 같이 할 때는 정리자 임의대로 한 문장으로 묶어 정리하였음.
- * 토론자의 이름은 발언내용 앞에 명시하였음.
- * 책의 내용중 討論主題가 들어 있는 문단은 전단을 옮겨 적었음.
- * 이번 정리는 1992년도의 정리방식과는 달리, 1993년도 토론 내용중 정리자 임의대로 주제를 발췌 정리하였음.

***. 討論者

- 洪元植,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正教授.
- 朴贊國,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副教授.
- 金重漢,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副教授.
- 成宇鏞, 國立醫療院 韓方部.
- 裴오성, 서울 白象韓醫院 院長.
- 정행규, 서울 흥제韓醫院 院長
- 鄭勉, 서울 동명韓醫院 院長
- 金圭烈,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專任講師.
- 李容範, 慶熙大學校 韓醫科 大學 古典研究所 翻譯委員.

(68) 靈樞·衛氣行第七十六

黃帝問於岐伯曰：願聞衛氣之行，出入之合，何如。岐伯曰：歲有十二月，日有十二辰，子午爲經，卯酉爲緯，天周二十八宿，而一面七星，四七二十八星，房昴¹⁾爲緯，虛張爲經。是故房至畢爲陽，昴至心爲陰，陽主晝，陰主夜。故衛氣之行，一日一夜五十周於身，晝日行於陽二十五周，夜行於陰二十五周，周於五臟。是故平旦 盡，陽氣出於目，目張則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指之端。其散者，別於目銳眦，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散者，別於目銳眦，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別者以上至耳前，合於頷脈，注足陽明以下行，至跗上，入五指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之間，入掌中。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行 分，復合於目，故爲一周。

是故日行一舍，人氣行一周與十分身之八。日行二舍，人氣行於身與十分身之六。日行三舍，人氣行於身五周與十分身之四。日行四舍，人氣行於身七周與十分身之二。日行五舍，人氣行於身九周。日行六舍，人氣行於身十周與十分身之八。日行七舍，人氣行於身十二周在身與十分身之六。日行十四舍，人氣二十五周於身有奇分與十分身之二，陽盡於陰，受氣矣。

其始入於目，常從足少陰注於腎，腎注於心，心注於肺，肺注於肝，肝注於脾，脾復注於腎爲周。是故夜行一舍，人氣行於陰一周與十分身之八，亦如陽行之二十五周，而復合於目。陽一日一夜，合有奇分十分身之二，與十分身之二。是故人之所以臥起

之時有早晏者，奇分不盡故也。

洪元植：‘衛氣，營氣，經氣，生氣 등은 각기 다른 물질이 순행하는가?, 또는 한가지 氣의 役割 즉, 作用面에서 이름지어진 것인가?’가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衛氣라는 용어는 軍事用語일 수 있고, 그 기능은 外邪를 방어하고 生命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衛氣를 睡眠과 覺醒에 연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內經》의 思想이다.

朴贊國：이 篇에서 논하고 있는 衛氣의 順行과 <五十營>篇의 經脈의 順行과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즉 經脈의 順行은 手太陰, 手陽明……足少陽, 足厥陰으로 行하고 있지만, 衛氣의 順行은 낮에는 陽經을 들고 밤에는 五臟을 돌아 서로 같지 않다. 그렇다면 經脈의 順行과 衛氣의 順行이 전혀 별개의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날짜를 셈함에 있어 우리는 一年이라는 단위, 한 달이라는 단위, 週日, 5日 등 여러 가지를 쓰고 있으며 또, 하루를 나눔에 있어서도 晝夜로 나누고 時間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氣血의 運行을 여러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經脈 순행은 이를 晝夜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氣血이 十二經脈을 어떻게 순행하느냐를 말한 것이고, 衛氣 순행은 衛氣의 出入에 중점을 두어 衛氣의 機能의 發揮와 그 生成을 晝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衛氣가 陰分을 順行한다”에서 陰分은 陰經絡과 臟을 兼하여 말하고 있으며, 陽經絡을 순행할 때는 氣의 消耗가 일어나

1). 昴: 별이름.

고, 陰經絡을 순행할 때는 氣가 축적 된다. 여기서 蓄積의 과정은 消耗에 비하여 蓄積이 많다는 것이고, 消耗의 과정은 이와 반대됨을 의미한다.

衛氣는 晝夜 구분없이 全 經絡을 모두 순행하지만 낮에는 주로 陽經絡에서 활동, 작용하고 밤에는 주로 臟에서 氣를 축적한다. 그러므로 衛氣는 陰分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足太陽, 足陽明, 足少陽에 흐르는 氣는 별개의 氣이며, 이 흐른다는 의미는 (예로 足太陽에 氣가 흐르면) 足太陽이 主導的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金圭烈 : <經脈篇>의 “經氣”의 순행과 이 篇의 “衛氣, 人氣”의 관계증, 衛氣와 人氣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으며, 衛氣의 流注는 대강 다음의 세가지 즉,

1. 營氣의 순환을 따라 순행하는 氣의 경우,
2. 이 <衛氣行> 篇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낮에는 睛明穴에서 三陽經으로 散行, 流注하고, 밤에는 五臟을 유주하는 경우,
3. 外邪가 침범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부위로 달려가는 氣로 나눌 수 있다.

71) 靈樞·五癰津液別第三十六

黃帝問於岐伯曰：水穀入於口，輸於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邪氣內逆，則氣爲之閉塞而不行，不行則爲水脹，余知其然也，不知其何由生，願聞其道。

岐伯曰：水穀皆入於口，其味有五，各注其海。津液各走其道，故三焦出氣，以溫肌

肉，充皮膚，爲其津，其流而不行者爲液。天暑衣厚則腠理開，故汗出，寒留於分肉之間，聚沫則爲痛。天寒則腠理閉，氣濕不行，水下留於膀胱，則爲溺與氣。五臟六腑，心爲之主，耳爲之聽，目爲之候，肺爲之相，肝爲之將，脾胃之衛，腎爲之主外。故五臟六腑之津液，盡上滲於目，心悲氣并，則心系急。心系急則肺舉，肺舉則液上溢。夫心系與肺，不能常舉，乍上乍下，故欬而泣出矣。中熱則胃中消穀，消穀則蟲上下作。腸胃充郭，故胃緩，胃緩則氣逆，故唾出

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者，內滲入於骨空，補益腦髓，而下流於股。陽不和，則使液溢而下流於，髓液皆減而下，下過度則虛，虛，故腰痛而脛痠。陽氣道不通，四海閉塞，三焦不瀉，津液不化，水穀并行腸胃之中，別於廻腸，留於下焦，不得滲膀胱，則下焦脹，水溢則爲水脹，此津液五別之逆順也。

洪元植 : 《內經》에 나오는 津의 의미가 여러 가지이지만, 이 篇에서는 汗出溱溱의 뜻과 유사하다.

‘腎爲之主外’는 ‘下焦出氣’와 연관하여 보면 좋다.

李容範 : “溺與氣”에서 ‘與氣’를 ‘氣運을 준다’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朴贊國 : “溺與氣”에서 기는 刪去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리하여 上下文章이 서로 호응한다. “腎爲之主外”에서 主外는 잘못된 문장 같다. “爲其津”의 뜻은 ‘津液이 된다’는 것이며, 水谷의 진액중 三焦가 出氣하여 充皮膚, 溫肌肉하는 것이 津이다.

金圭烈 : “溺與氣”에서 ‘氣’를 小便으로 놓고 볼 때 나오는 蒸氣나 찌린내를 의미하고, “腎爲之主外”에서 主外는 신이 排泄을 主한다는 의미이며, “爲其津”은 ‘津液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는 水穀의 津液과 三焦에서 出氣한 元氣가 合하여 津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77) 靈樞·骨度第十四

黃帝曰： 願聞衆人之度， 人長七尺五寸者， 其骨節之大小長短各幾何。 伯高曰： 頭之大骨， 圍二尺六寸， 圍四尺五寸， 腰圍四尺二寸。

髮所覆者， 顛至項尺二寸。 髮以下至頤， 長一尺。 君子終折。 結喉以下至缺盆中， 長四寸。 缺盆以下至膈²⁾肝³⁾， 長九寸， 過則肺大， 不滿則肺小。 膈肝以下至天樞， 長八寸， 過則胃大， 不及則胃小。 天樞以下至橫骨， 長六寸半， 過則迴腸廣長， 不滿則狹短。 橫骨長六寸半。 橫骨上廉以下至內輔之上廉， 長一尺八寸。 內輔之上廉以下至下廉， 長三寸半。 內輔下廉， 下至內踝， 長一尺三寸。 內踝以下至地， 長三寸。 膝膑以下至跗屬， 長一尺六寸。 跗屬以下至地， 長三寸。 故骨圍大則太過， 小則不及。

角以下至柱骨， 長一尺。 行腋中不見者， 長四寸。 腋以下至季脇， 長一尺二寸。 季脇以下至脾樞， 長六寸。 脾樞以下至膝中， 長一尺九寸。 膝以下至外踝， 長一尺六寸。 外踝以下至京骨， 長三寸。 京骨以下至地， 長一寸。

耳後當完骨者， 廣九寸。 耳前當耳門者， 廣一尺三寸。 兩顴之間， 相去七寸。 兩乳之間， 廣九寸半。 兩髀之間， 廣六寸半。 足長

2). 할(갈?): 어깨뼈.

一尺二寸， 廣四寸半。

肩至肘， 長一尺七寸， 肘至腕， 長一尺二寸半。 腕至中指本節， 長四寸。 本節至其末， 長四寸半。 項髮以下至背骨， 長二寸半。 脊骨以下至尾骶⁴⁾二十一節， 長三尺。 上節長一寸四分分之一， 奇分在下， 故上七節至于脊骨， 九寸八分分之七。

此衆人骨之度也，

洪元植: <骨度>篇에 따라 도형을 그려 보면 이상적인 體型이 될 것이다.

本文의 骨度에 준하는 체형의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의 골도는 標準型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朴贊國 : 骨度의 길이는 각 部位에 따라 다르다.

金重漢 : 骨度의 길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部位에 따른 차이가 없다.

鄭勉 : 옛날과 지금은 길이의 概念이 다르므로 《內經》의 단위는 현실성이 없다.

80) 靈樞·通天第七十二

黃帝曰： 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 太之人， 多而無陽， 其血濁， 其衛氣滯， 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瀉， 不能移之。 少之人， 多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太陽之人， 多

3). 우: 가리. 膈肝: 가슴앞의 오목한곳에 있는뼈.

4). 제(저): 등, 불기.

陽而少，必謹調之，無脫其，而瀉其陽，陽重脫者，易狂，陽皆脫者，暴死不知人也。少陽之人，多陽少，經小而絡大，血在中而氣外，實而虛陽，獨瀉其絡脈，則強氣脫而疾，中氣不足，病不起也。

陽和平之人，其陽之氣和，血脈調，謹診其陽，視其邪正，安容儀，審有餘不足，盛則瀉之，虛則補之，不盛不虛，以經取之。此所以謂陽，別五態之人者也。

黃帝曰：夫五態之人者，相與母故，卒然新會，未知其行也，何以別之。少師答曰：衆人之屬，不如五態之人者，故五五二十五人，而五態之人不與焉。五態之人，尤不合於衆者也。黃帝曰：別五態之人，奈何。少師曰：太之人，其狀黧⁵⁾黧然黑色，念然下意，臨臨然長大，臃然未僕，此太之人也。少之人，其狀清然竊⁶⁾然，固以賊，立而躁嶮⁷⁾，行而似伏，此少之人也。太陽之人，其狀軒軒⁸⁾，反身折臃，此太陽之人也。少陽之人，其狀立則好仰，行則好搖，其兩臂兩肘，則常出於背，此少陽之人也。陽和平之人，其狀委委然隨隨然，頤⁹⁾頤然，愉¹⁰⁾愉然，眦¹¹⁾眦然，豆豆然，衆人皆曰君子，此陽和平之人也。

成字鏞：“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에서 而’는 ‘以’로 해야 한다.

洪元植：四時 즉 春夏秋冬의 四分法에서 출발한다. 李濟馬의 四象은 이의 대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보완한 것 같다.

金重寒：《內經》의 五態人과 李濟馬

5). 탐: 오디처럼 검은 모양. 검다. 탐: 어둡다. 검은 모양. 몰래. 짐: 더럽히다.

四象人의 차이점을 살펴 보면, 《內經》에서의 五態人은 모든 사람을 五態人으로 대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독특한 性格과 體質이 드물게 있음을 말한 것이고, 李濟馬의 四象人은 모든 사람을 四象의 體質로 구분한 점에 있다. 실제 인간의 性情과 體質을 두고 볼 때 《內經》의 說이 보다 타당한 것 같다.

襲오성：이제마의 四象과 概括的인 面에서 합치 된다. 多陰無陽 등은 氣로 對比하여 풀 수 있다. 따라서 《內經》은 四象을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3)-95) 靈樞·經脈第十

肺手太 之脈，……是動則病肺脹滿膨¹²⁾而喘欬，缺盆中痛，甚則交兩手而瞽¹³⁾，此爲臂厥。是主肺所生病者，欬，上氣，喘喝，煩心，滿，臑臂內前廉痛厥，掌中熱。氣盛有餘，則肩背痛，風寒，汗出中風，小便數而欠。氣虛則肩背痛寒，少氣不足以息，溺色變。……大腸手陽明之

6). 절: 좀도둑. 私也. 근거없이 근거하다. 좀스럽게 아는척하다. 깐깐하다. 얕다.

7). 험: 막혀서 가기 어렵다. 산이 가파르다.

8). 저: 쌓다. 저축하다. 버금. 태자. 종. 너그럽다.

9). 웅: 큰 머리통. 우러르다. 엄정한 모양. 힘세다.

10). 유: 기쁘다. 유쾌한 모양. 복종하다. 고달프다. 게으르다.

11). 선: 눈매가 예쁘다. 예쁘다.

12). 팽: 배불룩하다.

13). 무: 눈이 희미하다. 어지럽다. 감히 바로보지 못하는 모양. 모: 현기증.

脈, ……是動則病齒痛, 頸腫. 是主津液所生病者, 目黃, 口乾, 飢,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 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 虛則寒慄不復. ……胃足陽明之脈, ……是動則病洒洒振寒, 善呻¹⁴⁾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聲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是爲肝¹⁵⁾厥. 是主血所生病者, 狂瘡溫淫, 汗出飢, 口喎¹⁶⁾脣¹⁷⁾, 頸腫喉痺, 大腹水腫, 膝臑腫痛, 循應乳氣街股¹⁸⁾伏兔肝外廉, 足附上皆痛, 中指不用, 氣盛則身以前皆熱, 其有餘於胃, 則消穀善饑, 溺色黃, 氣不足則身以前皆寒慄, 胃中寒則脹滿. ……脾足太

之脈, ……是動則病舌本強, 食則嘔, 胃脘痛腹脹, 善噫, 得後與氣, 則快然如衰, 身體皆重. 是主脾所生病者,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痛, 溇¹⁹⁾瀉泄, 水閉, 黃疸²⁰⁾不能臥, 強立,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 ……心手少

之脈, ……是動則病噎乾, 心痛, 渴而欲飲, 是爲臂厥.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 ……小腸手太陽之脈, ……是動則病噎痛, 頷²¹⁾腫,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 是主液所生病者, 耳聾, 目黃, 頰腫, 頸頷, 肩臑肘臂外後廉痛. ……膀胱足太陽之脈, ……是動則病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臑如結, 蹠如裂, 是爲蹠厥. 是主筋所生病者, 痔, 瘡, 狂, 癲疾, 頭顙²²⁾項痛, 目黃, 淚出, 飢, 項背腰尻臑蹠脚皆痛, 小指不用. ……腎足少

之脈, ……是動則病饑不欲食, 面如漆柴, 欬唾則有血, 喝喝而喘, 坐而欲起, 目眈²³⁾眈如無所見, 心如懸若饑狀. 氣不足則

14). 신: 읊다. 신음하다.

善恐, 心惕惕如人將捕之, 是爲骨厥. 是主腎所生病刺,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噎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澼²⁴⁾, 脊股內後廉痛, 痿厥, 嗜臥, 足下熱而痛. ……心主手厥 心包絡之脈, ……是動則病手心熱, 臂肘攣急, 腋腫甚則脇支滿, 心中憺²⁵⁾憺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是主脈所生病者, 煩心, 心痛, 掌中熱. ……三焦手少陽之脈, ……是動則病耳聾²⁶⁾渾²⁷⁾焮²⁷⁾焮, 噎腫, 喉痺.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皆痛, 頰痛, 耳後肩臑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 ……膽足少陽之脈,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頷痛, 目銳皆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癭²⁸⁾, 汗出振寒, 瘡, 脇肋脾膝外至脛, 絕骨, 外果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 ……肝足厥 之脈, ……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 丈夫癢疝, 婦人少腹腫, 甚則噎乾, 面塵, 脫色. 是主肝所生病者, 滿, 嘔逆, 飧泄, 狐疝, 遺

15). 간(한): 정강이뼈. 뼈. 갈빗대.
 16). 와: 입이 비뚤어지다.
 17). 진: 진 버짐. 역질. 날에 다치다.
 18). 고: 다리. 대퇴부.
 19). 당: 수령. 진흙. 못.
 20). 달: 황달. 악창.
 21). 함: 얼굴빛이 노랗다. 부황이든 모양. 턱. 암: 머리끄덕이다.
 22). 신: 정수리. 同. 凶古字.
 23). 황: 눈어둡다.
 24). 벽: 빨래하다. 창자사잇물. 배속물.
 25). 담: 편안하다. 움직이다. 고요하다.
 26). 혼: 섞여 흐르는 소리 또는 모양. 흐리다. 크다. 거느리다.
 27). 돈: 빛이 희미하다. 순: 밝다. 불빛. 퇴: 성하다.
 28). 영: 목의 혹.

溺, 閉癰.

金重漢 : 먼저 是動의 '動'字는 張景岳이 말했듯이 變動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是動病과 所生病의 學說은 구구하다. 즉, 《難經》에서는 是動病은 氣病이요, 所生病은 血病이라 하였고, 張介賓도 이를 따랐다. 張志聰은 是動은 外因의 소치요, 所生病은 內因의 소치라고 하였다.

여기서 是動病과 所生病의 症狀差異가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兩者의 症狀이 表症이나 裏症 혹은, 輕症, 重症 등의 뚜렷한 차이점을 볼 수 없다. 결국 다시 명칭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是動은 陽的인 명칭이요, 所生은 陰的인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張志聰의 견해와 같이 病이 시작된 부위가 外部 經絡에서 시작되는가? 아니면, 內部的 臟腑에서 발생하는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로서는 확신할 만한 답을 알지 못하겠다.

李容範 : 《馬王堆 醫書》에서는 所生病을 所產病이라 하고 있다. <本輸>와 <根結篇>, <馬王堆 醫書>의 유주가 相通하는 점이 있다.

朴贊國 : 是動病은 自經病이고 所生病은 他經病이다. 是動病은 經絡의 病理現象이며, 所生病은 나타난 症候를 그 經絡으로 치료한다. (陰經의 病은 轉移가 약하고 陽經의 病은 전이가 심하다) 骨- 筋- 氣- 津液의 순위(육체적 발생)

膽足少陽之脈.....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頷痛.....에서 어떻게 膽經脈이 骨의 所生病者를 치료할 수 있는가? 물론

骨은 腎이 主管하고 있으므로 그 병도 腎이나 腎經脈이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骨을 생성시키는 것을 腎이 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氣血이 骨을 生成하려면 膽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체에서 骨이라 하면 가장 속에 있는 인체 구성요소로서 氣血의 공급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갈취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부위보다 먼저 얻을려고 하는 것이 生理이다.

그러므로 皮膚, 筋, 脈 등을 거쳐 骨에 이르는 과정에서 人體의 調節機能이 해이해지면 氣血은 皮膚나 筋, 脈 등에서 다 소모되어 버리고 骨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腎이 骨을 잘 滋養하려 하지만 어렵게 된다. 膽은 中正之官으로 인체의 紀綱을 잡는 기관이다. 膽의 기능을 강화시킨 연후에야 調節기능이 회복되어 骨에 대한 營養, 供給이 충분해질 수 있다.

臨床적으로도 精神이 불안한 사람에게 骨病이 나타나면 먼저 膽을 치료하여 볼 것이다.

成字籟 : '是動·所生考'에 수록되어 있음.

97) 素問·血氣形志篇第二十四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 常少血多氣, 厥 常多血少氣, 太 常多氣少血. 此天之常數. 足太陽與少 爲表裏, 少陽與厥 爲表裏, 陽明與太 爲表裏, 是爲足之陽也. 手太陽與少 爲表裏, 少陽與心主爲

表裏，陽明與太 爲表裏，是謂手之 陽也。今知手足 陽所苦，凡治病必先去其血，乃去其所苦，伺之所欲，然後瀉有餘，補不足。

洪元植：“多氣”潤澤，彈力性이다.

정행규：内部存在를 보장하기 위하여 氣血多少가 나타나게 된다. 예로 땅에 나무가 많은 곳은 지하에 습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털이 많이 나는 부위를 통하는 經絡은 多血하다.

朴贊國：三陰三陽의 변화에 따라 보아야 한다.

138) 素問·逆調論篇第三十四

帝曰：人之肉苛者，雖近衣絮²⁹⁾，猶尚苛也，是謂何疾。岐伯曰：榮氣虛，衛氣實也，榮氣虛則不仁，衛氣虛則不用，榮衛俱虛，則不仁且不用，肉如故也。人身與志不相有，曰死。

朴贊國：不仁은 의지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것이다.

不用은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

金重漢：不仁과 不用은 症狀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한 것일뿐, 患者가 가지는 思考나 意志와 상관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9). 서: 헌숨. 숨. 두건. 처: 간 맞추다. 가: 실 얼크러지다.